

다윗 왕의 역기능 가족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이해와 적용

김 태 두*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다윗 왕의 역기능 가족을 목회상담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연구는 현대의 많은 가족들에게서 나타나는 역기능적인 이슈 들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관점의 이해와 적용이란 점에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연구자는 삼하 13:1-16:23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연구하였다. 첫째, 압살롬의 형제 살인과 반역에 대한 배경, 둘째, 다윗의 분노 다루기와 훈육 실패로 인한 결과들을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으로는 관련 본문 들을 주해하고, 목회상담, 사회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 후 재해석 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들을 보면, (1) 가족관계의 파괴, (2) 가족 구성원 간의 분노와 원한 관계 형성, (3) 분노처리와 훈육의 실패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력 등이다. 셋째로, 다윗의 역기능 가족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적용 점 들은 다음과 같다. (1) 위기 상담의 골든 타임의 중요성, (2) 성경적 본이 되는 부모의 역할과 자녀 양육법의 중요성, (3) 적절한 훈육과 징계의 필요성, (4) 가족 모두 분노 다루는 법의 중요성 등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 최선을 다할 때 역기능 가족의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목회 현장에서 목회상담을 해야되는 목회자들에게도 다소나마 유용한 제안 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역기능 가족, 위기 상담, 분노 다루기, 회피, 훈육

• 논문 투고일: 2020년 10월 12일

• 논문 수정일: 2020년 10월 31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11월 7일

*글로벌 침례신학교 상담학과 조교수

I. 여는 글

이 연구의 목적은 역기능 가족(dysfunctional family)이었던 다윗 왕 가족을 목회상담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성경적인 제안을 통해 목회현장과 역기능 가족들을 돕기 위함이다.¹⁾ 21세기를 들어 서구 선진국들에서 흔히 일어나던 이혼과 별거와 홀혼이 이제는 한국 교회와 사회에서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²⁾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가족들과 그들을 둘러싼 친족들과 공동체들, 교회와 사회 전반에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³⁾ 가장 최소단위의 예배 공동체인 가족이 몸살을 앓게 되고, 이는 곧바로 교회공동체의 고통으로 이어지며, 이들을 치유하고 상담해야 할 목회자들 또한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의 역기능 가족에 대한 이해와 위기 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연구하는 것은 나름대로 목회상담에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다윗의 역기능 가족의 극단적인 부작용은 압살롬의 형제 살인과 부친

- 1) 다윗 왕 가족(King David's family) 이란 다윗을 가장으로 한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로 이루어진 직계가족 (immediate family)을 언급한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연구에서는 NIV, 1984 version과 2005년판 한글개역개정 성경 그리고 넷슬 알란드 28판 신약성경과 BHS (Biblica Hebraica Stuttgartensia) 2nd ed. 구약성경을 쓸 것이다.
-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19년 이혼 건수는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인구 1000 당 2.2 건”으로 2% 증가했으며, 초혼부부의 결혼은 8%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부부 둘 다 초혼 (76.9%)과 남녀 모두 재혼 부부는 12.3% 였다. 남자만 재혼인 경우는 4.1%, 여자만 재혼인 경우는 6.3% 였다. 결국 남녀 모두 혹은 한쪽만 포함하면 22.7%가 재혼하면서 이혼율의 증가 (결국 초혼 결혼 커플 네 쌍중 한 쌍이 이혼하는 셈) 와 함께 재혼이 증가 추세에 있다. (2020년 10월 30일).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80972>.
- 3) 주디스 월러스타인과 그의 팀은 25년간의 “종단연구” (longitudinal study: 동일 연구 집단을 수년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통해 이혼 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발표하였다. 이에대한 연구는 다음의 책들을 참고하라. Judith Wallerstein, Julia Lewis, and Sandy Blakeslee, *The Unexpected legacy of Divorce: A 25-Year Landmark Study* (New York: Hyperion, 2000); Judith Wallerstein and Sandra Blakeslee, *Second Chances: Men, Women, and Children a Decade After Divorce* (New York: Ticknor & Fields, 1989).

다윗 왕에 대한 국가적 반역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⁴⁾ 이런 점에서 다윗의 역기능 가족은 그 심각성이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 더군다나 성군 다윗의 가족에게 이런 심각한 역기능적인 면이 있었다는 것은 복잡다단한 현대를 사는 가족들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와 제안은 현대의 역기능적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목회상담학적인 적용에 유익할 것이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대의 역기능 가족들 또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연구는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타락이후 모든 문화와 민족의 가족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다윗의 역기능 가족의 문제는 현대인의 가족에서도 그 원인과 결과는 context만 다를 뿐 유사점이 많다. 그러기에 압살롬과 다윗의 역기능 가족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이해와 치유와 회복은, 이러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며 상담해야 하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유익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펴는 글

1. 압살롬의 형제살인(fratricide)과 반역에 대한 배경이해

압살롬은 다윗 왕의 넷째 부인 마아가 (삼하 3:3)에게서 태어난 왕자로, 다말이 그의 자매였다. 다말과 압살롬의 모친은 그술(Geshur)왕의 공주였다. 이러한 이복누이인 다말을 향해, 다윗 왕의 셋째 부인 아히노암이 낳은 첫째 아들 암논(Amon)이 짝사랑하며 상사병에 빠졌다 (삼하

4) 형제 살인 (fratricide)의 효시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인 사건에서부터 비롯된다 (cf. Gen 4:5-15). 가인의 형제 살인 (히 11:4 참조)과 압살롬의 형제 살인은 이들 각각이 분노조절의 실패와 함께, 그들의 부모들의 죄악들이 어우러져 일어난 사건들로서 공통점을 갖는다.

13:1-6). 이러한 일부다처제 가족(polygamous family)이나 의붓 가족(stepfamily)에서는 종종 근친상간(incest)이 벌어지곤 한다. 이에 대해 성경은 비 인륜적인 성범죄로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레 18:24-30). 사무엘하 기사는 11-12장에 걸쳐 “다윗 왕과 밧세바의 간통과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의 말미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출생을 통해 회복과 치유의 메시지를 주셨다 (삼하 12:24-25). 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전해준 다윗 왕의 간통과 간접살인 사건이 초래한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이 유효하며,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죄의 결과는 사망” (롬6:23)이라는 엄중한 선언을 하고 계신다 (Bergen: 1996).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밧세바 사건”에 대해 다윗 왕을 이렇게 다루셨다.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와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헛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헛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 . (삼하 12:8-15).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업신(despise: 2x: 9-10절) 여기고 많은 아내들이 있었음에도, 칼로 우리야를 죽이고 (2x: 9-10절) 그 아내를 빼앗아 (2x: 9-10절) 자기 아내를 삼은 것이었다. 이 행위는 다시말해 삼하 7: 8-16의 나단의 신탁을 통한 “다윗언약”(Davidic Covenant) 파기에 대한 중범죄였다. 또한 십계명의 네 가지 계명들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이다. (살인, 간음, [다윗보다 훨씬 더 가난한 사람의 것을] 도둑

질하고, 이웃의 것을 탐냄: 출 20:13-17; 신 5:17-21).⁵⁾ 더욱이 다윗왕은 하나님의 친 백성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와 평강으로 다스려야 할 왕이었으나 사적인 탐욕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는 또한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도 치명적인 죄였다. 둘째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출 21:24)과 같은 심판이 다윗의 가족에게 미칠것이란 두려운 심판이었다. 다시말해, 강간과 살해 사건 등 다윗의 집에 연속적인 재앙들이 임한다는 메세지였다. 이는 물론 심판 중예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지만 악한 죄에 대한 심판 역시 댓가를 치루게 하셔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이다 (신 19:19-21).

밋세바 사건과 그에 대한 적절한 사후처리 미숙이 압살롬의 복수와 반역의 주된 이유였지만, 다윗의 일부다처 가족들의 역기능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다시말해, 다윗 가정엔 항상 부인들 간에 그리고 이복형제들 간의 경쟁과 시기 및 질투가 상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부다처제 가정의 역기능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다(Al-Krenawi & Graham, 2006; Elbedour, Bart, & Hektner, 2000; Lev-Wisel & Al-Krenawi, 2000; Ozkan, et al., 2006; Planitz, Effney, & Peterson, 2009; Wiemers, et al., 2019).⁶⁾ 더구나 제사장 나라

5) 밋세바 사건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멧세지는 “여호와와 말씀은 업신 여겼으며,” 다윗이 자신보다 훨씬 더 가난한 이웃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양과 소가 아주 심히 많은 부자인 다윗과 양 한 마리 가진 가난한 이웃의 비유: 삼하 12:1-6)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악행에 대한 것이었다. 이 사건에 앞서, 하나님은 삼하 7장의 나단의 신탁을 통한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에 대한 축복과 경고의 멧세지도 함께 주셨다 (삼하 7:12-16). 이 언약이 있는지 얼마후 일어난 밋세바 사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죄악이기도 했다. 또한 십계명의 네 가지 계명들의 범한 것이기도 하다.

6) 일부다처제 (polygamy)는 일부일처제 (monogamy)를 결혼의 근간 (창 1:27-28; 2:18-25; 말 2:15; 마 19:4-5; 딤후전 3:2, 12; 딤후 1:6)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명백히 어긋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위에 열거한 학자들의 보고들은 펴는 글에서 필요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요 거룩한 [언약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다윗은 이스라엘 국가의 근간이 되는 토라(instruction: תּוֹרָה: *tôrâ*)를 직접 범함으로 왕의 권위는 물론 가장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 내린 치명적인 결점이 있는 왕이었다. 결국 암논은 간교한 요나답(Jonadab)의 간계를 통해 다말을 근친 강간(rape-incest)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암논은 강간 후에 짝사랑의 감정이 증폭된 미움으로 (*hated her with intense hatred*) 돌변하여, 다말을 강제로 쫓아내게 된다. 이로써 다말은 형제인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삼하 13:1-20).

2. 다윗의 분노 다루기와 훈육 실패로 인한 결과들

암논의 근친 강간은 여러 면에서 자신은 물론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했다. 이처럼 죄의 쓴 뿌리는 죄를 범한 행동 주체인 자신은 물론 그를 둘러싼 공동체에 엄청난 파괴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암논 한 사람의 비행은 가족은 물론 압살롬의 국가적 반역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파괴력을 가지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상승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분노 다루기와 훈육에 실패한 결과들은 가족관계의 파괴, 가족 구성원 간의 분노와 원한 관계의 형성, 분노처리와 훈육의 실패에 따른 부정적 영향력 등이다.

(1) 분노의 영향력: 가족관계의 파괴

하나님의 형상(창1:26-27: *Imago Dei: Şelem and Demût*)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우주를 창조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임”(sonship)과 동시에 문화명령(창 1:28)으로서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섬기는 왕”(servant kingship)으로 해석된다 (Dumbrell, 2002; Gentry & Wellum, 2015). 이는 고대 근동 아시아 (Ancient Near East)에서 유례

를 찾아볼 수 없는 인간 이해로서,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고대 근동의 왕에게 해당하는 신분적 상승과 통치 권한은 인간에게 부여하셨음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모든 인류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지위, 문화적 배경, 교육수준, 빈부격차, 신체적 우월성 등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기는 왕으로서 평가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존재들 인 것이다.⁷⁾

더욱이 가족은 (창 2:18-25)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신적 기관(divine institution) 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의 공동체와 국가를 세우는 최초의 공동체로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Calvin, 1975; Bavinck, 2012; Beck, 2010; 김규보, 2019). 하나님은 이 가족을 통해서 문화명령(cultural mandate: 창 1:28)이 이뤄지도록 창조 시 설계하셨다. 이 문화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Great Commission: 마 28:19-20)으로 완성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암논의 근친강간 사건은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다말의 인생에 악을 행한 사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 가족에 연속적인 살인사건과 불화 및 국가적 반역에 이르는 대형 악재들을 야기시켰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배후에서 노리는 전략이다. 이로 말미암아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인 인간과 그들의 축복된 신성한 기관인 가정을 파괴시키고 더 나아가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파괴시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다 (Balswick & Blaswick, 2014; Browning et. al., 2000; Kim, 2006). 이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부부관계의 단절은 물론 만물과의 갈등 및, 종국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의 단절에서 볼 수 있다 (창 3:1-24; Erickson, 1985). 이런 사악한 일에 음욕으로 불타던 암논이 쓰임을 받았던 것이다.

7) 김준은 기독교 상담의 인간 이해의 틀로서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죄인으로서의 인간”에 대해 “삼중적 관계,” 즉 하나님, 동료 인간, 그리고 자연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준. Heinz Kohut의 인간이해와 기독교 상담” (2013). 복음과 상담. 제20권, 13-14.

(2) 분노는 가족 구성원간의 원한 관계를 형성.

암논의 근친 강간은 그 자체로서도 심각한 죄악이었지만, 그에 대한 사후처리는 그의 범죄의 잔혹성을 말해주고 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창 4:5-15) 볼 수 있듯이 분노는 그 감정과 행동이 잘 처리되지 못하고 순화되지 못할 때, 그 정도가 더욱 부정적으로 증폭되게 되어있다. 암논의 경우에도 다말에 대한 짝사랑의 감정이 일단 근친 강간의 악행 뒤에 더 증폭되는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삼하 13:15).⁸⁾ 이러한 악행 (심한 미움: *intense hatred*)⁹⁾은 부정적 상승작용 (*negative escalation*)을 통해 더 잔혹해짐을 볼 수 있다. 이관직은 (2015:152) 분석하기를 “암논의 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그의 성격장애에서 오는 분노였다” 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급격한 무드의 변화, 불안정한 사고와 감정, 충동조절 능력, 그리고 불안정한 대상 관계가 특징인 경계선 성격장애의 증상을 가장 잘 드러낸 성격 인물이 암논이다” (이관직, 2015:152-153). 암논의 증오 감정의 상승작용은 “수치심을 바탕으로 하는 증오의 감정”이며 “고의적 분노 즉 위협하려는 의도를 가진 분노”의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콜린스, 2008:194; Potter-Efron, 2004). 다시 말해서, 암논은 근친강간 (*rape-incest*) 이후 일시적 쾌락과 환상에서 깨어난 뒤, 밀려오는 죄책감과 사후처리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과 수치심을 상대적 약자인 다말을 고의적으로 위협함으로써 자신의

8) David G. Grith, *1 & 2 Samuel*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9), 438. 그 리스 (Grith)는 암논의 악행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심리적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해석한다.

9) 버젠(Bergen)은 암논의 악행에 대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강한 섹욕”이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해석한다. 한편 “죄책감과 수치심이 암논의 감정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으며, 그 결과 그는 다말을 사랑했던 것 보다 더 증오하게 되었다”고 주해하고 있다. Bergen, *1 & 2 Samuel*, 382; 이관직은 암논이 “경계선 장애”는 물론 “자기애적 성격장애”와 “반사회성 성격장애” 자라고 분류했다. 이관직, *성경과 분노 심리*, 152-153.

비행을 정당화하려는 분노로 보인다 (Bergen, 382; 이관직, 2015:152-153). 이상은 성폭행의 주체인 암논에 대한 분노의 이해라면 다음은 성폭행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압살롬에 대한 분노의 이해이다.

압살롬(Absalom)은 침묵의 암살자와 같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압살롬은 다말이 근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자신의 집에 와 처량하게 이 년 동안이나 살고 있었음에도 암논에 대한 복수의 계획조차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양털 깎는 행사에 초대받은 암논을 살해한 후 자신의 어머니의 친정인 그술 (Geshur) 땅에 피난 가서 삼 년을 지냈다 (삼하 13:37-38절).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사 년이 되던 해에 드디어 압살롬은 부친 다윗 왕을 향해 국가적 반역의 거사를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삼하 15:1-12). 이처럼 9년의 세월 동안 압살롬은 이복형제 암논의 살해 (fratricide)와 다윗 왕에 대한 반역을 도모하는 일에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며 거사를 도모한 침묵의 암살자와 같은 성격을 지닌 자였다.

이러한 압살롬은 Potter-Efron의 “분노의 유형들” 분석에 의하면, 형제 암논과 부친 다윗 왕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하는 분노,” “수동적 공격성,” “도덕적 분노”와 “원망과 증오” 감정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수 년째 쌓인 분노가 부정적 상승작용 (negative escalation)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표출된 극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Collins, 2008:194). 압살롬의 형제살해와 부친 다윗 왕에 대한 국가적 반란의 일차적인 책임은 압살롬에게 있다. 하지만 다윗 왕의 문제해결 능력의 부재와 무능 무책임과 가장으로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함으로 (avoiding)서 문제를 미해결의 과제로 덮어두려는 다윗 왕의 행태에도 이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분노 자체는 인간의 자기방어 기제로서 자연스러

운 감정일 수 있지만, 건강하게 치유되지 않는 분노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콜린스, 2008; Cosgrove, 1988). 성경 역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엨 4:26-27)고 권면하고 있다. 즉 분내는 것을 억제할 수는 없더라도 그것이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조기에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해결하여 마귀가 그 문제에 진지를 구축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압살롬의 비극을 보면서, 다윗 왕 가족의 문제해결 방식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가정으로서 암논과 같은 근친 성폭행이 일어나도록 방치 하거나, 건강한 쌍방 간의 대화 (Kim, 2012)¹⁰⁾가 부재한 가정으로서, 다윗 왕의 가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일부다처제 가정의 폐해를 단명하게 보여준다.

(3) 분노처리와 훈육의 실패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력

다윗 왕은 가족의 위기상황에 직면해서 책임 있는 행동과 결단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였다. 가장으로서 다윗은 훈계 (discipline)와 처벌(punishment)이란 시스템을 전혀 가동 시키지 않았다. 이처럼 다윗에겐 분명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 철저한 실패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모든 만물의 이치는 어떤 큰 사건이 발생하기 전 경고음을 낸다. 다윗 왕 가정에도 이런 경고음들이 여러 번 울렸음에도 다윗은 귀머거리처럼 그 경고음을 무시하고 못들은 채 하는 것으로 일관함으로 더 큰 재앙을 불러 들였던 것이다.

10) 김태두 (2012)는 갈등 해결 방안 중 아래의 네 가지 분야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1) 지도력, (2) 대화의 기술 (communication skills), (3) 갈등유발 요소들 (triggering issues), (4) 갈등 해결 접근법” (pp. 16-33). 이것 들 중에서 “대화의 기술”은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데 핵심적인 요소로 특별히 위기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더더욱 중요하다. (Paul) Taidoo Kim. (2012). *Church Conflict and Its Resolution In Southern Baptist Korean-American Churches In North Texa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그렇다면 암논의 근친 강간이 벌어지기 전 어떤 경고음이 울렸었는가? 바로 나단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였다. 나단의 경고음엔 “네 집에”(삼하 12:10)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와 네 집에”(your own household)에 재앙이 일어나고 네 아내들이 백주에 강간(rape)을 당하리라는 경고였다. 그러나 다윗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윗이 만약 영적으로 무장하고 집안일에 좀 더 신경 쓰며 자녀들 양육에 관심을 기울였다라면 암논의 근친 강간과 이로 말미암은 압살롬의 살해극이나 자신에 대한 반역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윗은 또한 율법 책에 기록된 말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토라 (תּוֹרָה: *tôrâ*) 말씀을 통한 자녀 양육에 게으른 모습을 보였다. 특별히 신명기에서 거듭거듭 강조되는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 שְׁמַע יִשְׂרָאֵל: 신 6:4-9)이다. “쉐마 이스라엘” 속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 (Dumbrell, 2002; Sherrill, 1994; Christensen, 1991; Block, 2012). 그러나 다윗의 이복 자녀들의 풍파 가운데 이를 전후하여 “쉐마교육”을 통한 토라 교육을 자녀들에게 열심히 실천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다윗은 “진노 중에라도 공홀을 베푸시는”(합 3:2) “하나님의 은혜” 즉 사건 발생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음을 무시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회피함으로 대형 악재들을 경험하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3. 목회 상담학적인 이해와 적용

목회상담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의 가정과 유사한 갈등과 미숙한 분노처리와 형편없는 자녀 양육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목회 현장의 사역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역기능적인 가족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것인가? 몇 가지 적용을 위한 제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 상담의 골든 타임의 중요성, 둘째, 매사에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될 것, 셋째, 적절한 훈계와 징계의 필요성, 넷째, 분노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 등이다.

(1) 위기 상담의 골든 타임의 중요성

모든 위기사건에는 그 사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게 마련이다. 세월호의 참사에서 보여주었듯이, 인명구조의 골든 타임을 줄속행정과 안일 무사주의로 더더욱 참사를 키움으로 꽃다운 청소년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다. 다윗의 가정에 찾아온 위기에도 골든 타임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를 침묵과 회피로 일관함으로써 그 황금 같은 기회를 흘려 보내고 말았다. 그러기에 많은 상담 심리학자들은 위기 상담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신뢰와 작업 관계를 형성”하고 “빠르게 행동해야 하며, 때로는 결단력 있게 첫 회기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내담자들”을 도와 줄 것을 권한다 (Ivey, Ivey, & Zalaquett, 2017:465). 하지만 위기 상담은 회복의 과정(recovery process)이기에 상담하는 과정들을 건너뛰거나 성급하게 서두르라는 말과는 다름을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다 (Floyd, 2008).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어떤 위기 상담의 기회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그가 암논의 강간 사건을 듣고 “심히 노하였던”(furious) 때였다 (삼하 13:21). 만약 그때 암논에 대한 적절한 훈계와 징계가 이루어졌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만 이년이란 세월을 흘려보내면서 가장으로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그의 이복형제 암논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목회상담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 역시 심한 충격을 받았을 수 있다. 흠즈와 레이

(Holmes and Rahe)의 분류에 의하면 “가족의 사망” 시 스트레스 지수는 63% /100%이며, “가족의 건강 및 행동의 중요한 변화”는 44% /100%였음을 볼 때 (정태기, 1997:101-102), 가장으로서 다윗도 위기 상담이 필요한 내담자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상담을 나단 선지자나 다른 조언자로부터 상담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 이는 목회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목회상담의 주체에 있는 목회자들도 상담이 필요하고 자신의 어려운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로를 세워주는 모임” (accountability group)이 있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의 고충과 고민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소가 마련되어야만 한국 교회 전반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고, 성도들이 또한 영적으로 더욱 활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관직, 2017). 또한 가장으로서 “다말”에게서 나타나는 외상후장애 (PTSD)에 대한 상담과 돌봄도 병행을 했어야 마땅했다. 더욱이 압살롬에게서 꿈틀거리는 분노와 그 분노를 형제살해란 공격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 그러나 다윗은 무책임한 회피와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부친 다윗의 불공정한 처사에 대해 다말과 압살롬과 그들의 모친 마아가 (그술 왕의 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매우 복잡하고 서운하고 원통한 감정들로 세월을 보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상담 심리학자들은 일부다처제의 폐해 중 부인들이나 자녀들의 정신건강이나 반사회적 장애 및 이복형제들 간의 갈등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Al-Krenawi & Graham, 2006; Lev-Wiesel & Al-Krenawi, 2000; Ozkan et al., 2006).¹¹⁾

두 번째 골든 타임은 압살롬이 외가댁 그술 (Geshur)에 가서 삼 년을 지내는 동안이었다. 사무엘하 기지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

11) 특별히 Lev-Wiesel and Al-Krenawi은 아동들의 가족 그림들을 통해 “일부다처제 가족들에 대한 (베두인-아랍) 가족에 대한 인식을 흥미롭게 시도하였다. (cf. Lev-Wiesel and Al-Krenawi, 2000).

여 간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삼하 13:39). 그러나 다윗은 이번에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속으로 끙끙 앓기만 한다. 이에 보다못한 부하 장군 요압이 지락을 베풀어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데려오지만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삼하 14:24)며 압살롬을 거절하였다. 압살롬은 그때부터(만4년이 되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흠치기 시작하며 부친 다윗 왕에 대한 반역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분노가 극심한 공격형 형제살해로 발전했는지라도 이를 자기 가족의 방어차원에서 정당방위라고 항의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친 다윗이 이 사건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자 압살롬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적절한 타이밍을 가지고 위기상담을 진행하지 아니하면 일이 더 커지게 되어있다(삼하 16:20-23). 압살롬의 이러한 분노가 공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데는 다윗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처럼 위기 상담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적절한 훈육과 징계가 필요하다. 이럴 때 사람들은 부당한 처사에 대해, 아직도 공의와 정의가 순기능 하는(암 5:24) 공동체 속에서 분노로 인한 갈등과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정태기, 1997; Jason J. S., Gerald C. R, 1987: 37).

(2) 매사에 본을 보이는 자녀 양육법

성경적 자녀 양육의 원리는 부모가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친 것에 대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이는 자녀를 훈육함에도 예외는 없다(Köstenberger & Jones: 2010). “부모들이 자녀를 화나게 해서 안된다”(엡 6:1)는 교훈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고전 4:15)고 했다. 잉그램(Ingram)은 말하기를 “긍정적이고, 도덕적으로 건실하고, 책임감 있는 롤 모델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동시에 긍정적이고, 도

덕적으로 건설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자라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2006: 67-81).

이런 점에서 볼 때, 다윗 왕의 치명적인 약점은 본을 보이지 못한 아버지였다는 것이다. 다윗의 자식 사랑은 대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복 자녀들과 서로 다른 부인들 사이엔 암투와 질시 등으로 항상 잠재적 갈등의 요소들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불안정한 갈등요인들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예컨대, 일부다처제와 일부일처제 결혼에서 부인들의 삶과 결혼생활 만족도나 정신건강을 비교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일부다처제 결혼을 한 여성들은 “심각하게 높은 심리적 고통과 높은 수준의 신체형장애성 (somatization)과 공포증과 다른 심리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심각한 가족의 기능과 결혼관계와 삶의 만족도 등에 문제들”을 안고 있음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Al-Kerenawi & Graham, 2006:5-17). 또한 Mustafa Ozkan과 그의 동료들은, 일부다처제 가족의 여성들중 특별히 신체형장애가 시니어 부인들 가운데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특별히 시니어 부인들 가운데서 심리적 고통이 매우 컸으며 이는 정신의학자들이나 심리치료사들 사이에서 일부다처제의 가족구조에 대한 경성을 올려주고 있다 (Ozkan et.al, 2006).¹²⁾

일부다처제와는 다르지만 유사한 형태의 의붓 가족들(stepfamilies)과

12) DSM-V에 따르면 “신체형 장애”(somatization disorder)를 Somatic Symptom and Related Disorder로 새롭게 구성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다분히 DSM-IV에 근거한 분석 및 진단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 심각한 방해물 초래하거나 고통을 끼치는 하나 이상의 신체형 증세로서 과도한 생각, 감정, 행동들”과 연관이 있으며, “건강이나 이 증세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걱정”을 동반한다고 밝히고 있다. DSM-V, “Somatic Symptom and Related Disorder”를 참조하라. 2020년 10월 27일 접속.

<https://dsm-psychiatryonline-org.ezproxy.neu.edu/doi/full/10.1176/appi.books.9780890425596.dsm09>. 참조: 야하우스 & 셀스, 2010; Barlow and Durand, 2005.

정상적인 가족들 (biological families) 사이에서 자란 청소년들의 부모들과의 애정적 결속의 형태 (Attachment Patterns)를 비교 연구한 결과를 보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보다 의붓가족들 가운데서 자란 청소년들은 안전감의 결속형태(secure attachment)가 약했으며 타인에 대한 정신적 모델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Palnitz, Feeney, & Peterson; 2009). 또 다른 연구는 의붓 가정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자녀들은 “정신건강, 반사회적 행동, 약물복용, 제한된 삶의 기회들, 그리고 성적인 위협에 노출되는 행위들”이 18세 성인이 되면서 더욱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Nicholson, Fergusson, & Harwood, 1999:405).

이처럼 다윗 왕의 가족은 부인들 간의 갈등과 스트레스, 이복 형제들 간의 갈등과 시기, 질투를 비롯해서 암논의 근친 강간 사건과 같은 많은 위험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현대를 사는 부모들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식 관계를 원만하게 갖도록 본을 보여야만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서 본이 되지 않으면 자녀 양육(parenting)엔 치명적인 결함을 갖게 되며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3) 적절한 훈계와 징계의 필요성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본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훈계와 징계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성경은 말하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in the way he should go)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다 (잠 22:6, 15; 23:13-14). 특별히 신명기에서 거듭 강조되는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 (שְׁמַע יִשְׂרָאֵל)이다 (신 6:4-9). 즉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강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는 물론 자녀

들의 삶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가족은 지상의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자녀들에게 훈련 시키는 곳이며” 또한 “결혼의 목적은 경건한 자손 [말 2:15]을 양육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Luther, 2000: 410). 칼빈 역시 “지속적인 대화를 가짐으로 부모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가르침의 명령을 부지런히 실천해 옮겨야 할 것”을 강조하며,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로 양육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Calvin, 1999:134). 이런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장수와 형통의 복을 받게 되며 (신 5:16; 엡 6:2-3), “의의 평강의 열매”(히 12:11)를 맺게 된다. 또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택하며 살게 된다 (잠 22:6). 훈육은 또 자녀들을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만드는 축복을 가져다준다 (잠 12:1; 15:5, 32; 22:15; 29:15).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된다 (잠 29:17; John W. Miller, 2004).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과 종교 다원주의와 세속주의가 난무하는 요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무장해 있지 않으면 세상의 영향을 쉽게 받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기 십상이다 (Geisler, 2012; Muller, 2007; Sire, 2020; Tripp, 2001).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법과, 부모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법,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웃들을 사랑하는 법, 순결과 거룩에 대한 가르침 등을 힘쓰고 애써서 가르쳐야 할 것 이다.¹³⁾

13) 김규보는 “헤르만 바빙크”의 언약 이해를 중심으로 가정사역의 중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 김규보, “헤르만 바빙크 (H. Bavinck)의 언약 이해와 가정사역: 성경적 가족생활교육을 위한 실천신학적 함의,” 복음과 상담 제 27권 1호 (2019):81-120.

(4) 분노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

분노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인 의로움으로 불의와 부당한 행위에 부딪힐 때 일어나는 희노애락과 같은 자연스런 감정들 중의 하나이다.¹⁴⁾ 그러기에 “성경은 분노를 죄로 다루기보단 건설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분노를 죄라고 한다” (김태두, 2006). 야고보 사도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약 1:19-20) 했다. 다윗 왕의 경우 암논의 사건을 대할 때 “심히 노하였다”는 말 뒤에 분노를 건설적으로 처리하고, 가장으로서 이복형제들 간의 비행에 대해 위기 상담적 접근을 한 적이 전혀 없다 (삼하 12:21). 그리하여 화를 키우고 말았다.

토마스-킬만 (Thomas and Killmann, 1974:9)의 갈등해결 분류에 의하면 “회피 (avoiding), 적응 (accommodating), 경쟁, 타협 및 협력 (collaborating)”이 있는데¹⁵⁾, 다윗은 “회피”에 해당하는 갈등 해결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갈등 해결방식 중 매우 낮은 수준의 방법으로 실제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린 토마스에 의하면, 갈등 해결에 있어서 “협력이 관계를 매우 잘 유지할 수 있으며, 매우 높은 목표 지향성을 가지며, 건강하게 갈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Hocker & Wilmot, 1995: 108-12; Kim, 2012). 목회상담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불교나 유교, 도교 등의 영향”을 받아서 대개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드러내 놓고 말하지 않는 것을 미덕처럼” 배워왔다. 그래서 갈등이 야기 되었을 때 “자신의 감정이

14) 미국심리학회 (APA)에 따르면 분노 (anger)는 “완전히 정상적이고, 보통 건강한, 인간 감정”이라고 정의한다. “Controlling Anger Before it Controls You,” (2020, September 28) <http://www.apa.org/topics/anger/control>.

15) Kim, Church Conflict Resolution, 28, 100-104. Cited in Kenneth W. Thomas and Ralph H. Killmann. (1974) Thomas-Killmann Conflict Mode Instrument. (p. 28)

나 의견을 감추고 그 문제들을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다분하다. 이러한 갈등 해결법은 주로 “회피”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크리스찬 이든 아니든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갈등 해결 방법이 협력적인 (collaborating) 방법으로 계발되도록 목회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¹⁶⁾

그렇다면 어떻게 건설적으로 분노를 다루어야 하는가? 부모나 자녀 모두 건설적인 분노 다루는 법을 안다면 관계를 좀더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게리 콜린스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① 내 답자가 분노를 인정하도록 돕는다. ② 내답자가 분노를 표현하도록 도와 준다. ③ 내답자에게 분노의 원인을 생각하도록 돕는다. ④ 겸손, 고백, 그리고 용서에 초점을 맞춘다. ⑤ 분노를 관리하는 법을 가르친다. ⑥ 자기통제의 원칙을 가르친다. ⑦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한다” (Collins, 2008:197-202).

분노는 타락한 이 세상에 사는 한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다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삶, 그리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며, 분노를 건설적으로 다루는 법을 실천하며 살 때만이 분노의 치명적인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압살롬의 분노가 공격적으로 발전하기 전에 압살롬과 다윗이 원만한 위기상담과 분노 조절법들을 배우고 용서와 화해를 배웠더라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부모나 자녀들 모두 분노 처리법과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법을 배울 때 형제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6) 김태두 (2012), 10-11, 100-104; 참조: 이규태 (2007). 한국인의 의식구조 1, 3판. 서울: 신원 문화사, 52-56; 142-144; 국제한국학회 (2007).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 최준식 편저. 파주: 세계월 출판사, 245-255. 이규태는 “애매 모호한 대화법”이 한국인들 가운데 있다고 말한다. 한국인의 문화와 한국인에서 전해영은 “애매 모호한 대화법”이 유교적인 영향을 받은 한국의 사회적 구조에서 뿌리를 두고 있음을 주장한다.

III. 닫는 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다윗 왕의 역기능 가족을 목회상담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며 이에 대한 적용 점들을 살펴 보았다. 다윗의 가족은 구조적으로 많은 결함을 갖고 있는 취약한 (vulnerable) 한 가정이었다. 특별히 밋세바 간통 사건과 간접살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한 가장 다윗이, 먼저 회개하고 구조적 조정이 필요했었다. 나단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 (삼하 12:7-15) 이후에도 다윗은 별다른 회개와 삶의 변혁을 추구하지 않았고 안일 무사주의로 일관하다, 드디어 암논의 근친 강간 사건이 터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위기 사건 때 조기에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여러번 놓치고 말았다. 이는 다말의 형제인 압살롬에게 이 사건에 대해 정당화시키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결국 압살롬은 형제 살인과 다윗의 부인들을 근친 강간하고 부친을 대적하여 국가적 반역을 도모하게 되었고, 마침내 요압 장군에 의해 압살롬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

이처럼 다윗은 가정사에 관한 한 여러 면에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다. 또한 적절한 훈계와 징계도 행하지 않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했다. 분노 다루는 법을 자신은 물론 자녀들도 배우고 실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윗 가족사에 씻지 못할 오명과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상황 (context)만 다르지 현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도 교훈하는 바가 크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물론 성도들도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도 다윗 왕의 역기능 가정에서 교훈을 받고 이러한 재앙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신성한 기관인 가정이 건강하게 되고, 아울러 교회와 국가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마 28:19-20),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덮이도록 하게 될 것이다 (사 11:9; 합 2:14).

【 참고문헌 】

- 국제한국학회 (2007).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 최준식 편저. 파주: 사계절 출판사.
- 김규보 (2019). 헤르만 바빙크 (H. Bavinck)의 언약 이해와 가정사역: 성경적 가족 생활교육을 위한 실천신학적 함의. *복음과 상담*. 27(1), 81-120.
- 김 준 (2013). Heinz Kohut의 인간 이해와 기독교 상담. *복음과 상담*. 20(1), 13-14.
- 김태두 (2006). *행복한 결혼 건축가* (미출판 칼럼집). 달라스, 텍사스: 뉴스코리아.
- 이규태 (2007). *한국인의 의식구조 1*, 3판. 서울: 신원 문화사.
- 이관직 (2017). *성경으로 본 기독교 상담*. 서울: 지혜와 사랑.
- 이관직 (2015). *성경과 분노 심리*. 서울: 대서.
- 이관직 (2005). *성경 인물과 심리분석*. 서울: 생명의말씀사.
- 오성춘 (1997). *목회 상담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정태기 (1997). *위기 목회상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Al-Krenswi, A., & Graham, J. (2006). A comparison of family functioning, life and marital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of women in polygamous and monogamous marriag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52(1), 5-17.
- Balswick, J. O., & Balswick, J. K. (2014). *The family: A Christian perspective on the contemporary home*. Grand Rapids, MI: Baker.
- Barlow, D., & Durand, V. (2005). *Abnormal psychology: An integrative approach*. 4th ed. Belmont, CA: Wadsworth.
- Bavinck, H. (2012). *The Christian family*. Grand Rapids, MI: Christian's Library Press.
- Beck, P. (2010). The little church: Raising a spiritual family with Jonathan Edwards. *Puritan Reformed Journal* 2(1). 342-53.
- Bergen, R. (1996) *1 & 2 Samuel*. NAC. 7.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Publishers.
- Block, D. I. (2012). *Deuteronomy*, NIVAC. Grand Rapids, MI: Zondervan.
- Browning, D., Miller-McLemore, B., Douture, P., Lyon, K., & Franklin, R. (2000). *From culture wars to common ground*.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Calvin, J. (1975). *A commentary on Genesis*. In Calvin's commentaries. Vol. 1, (J. King Trans.). London: The Banner of Truth.
- Calvin, J. (1999). *Harmony of Exodus, Leviticus, Numbers, Deuteronomy* (1563) In Calvin's commentaries. Vol. 2. (C. Bingham, Trans.). Grand Rapids, MI: Baker.
- Christensen, D. (1991). *Deuteronomy 1-11*. WBC. Vol. 6A. Dallas, TX: Word Books Publisher.
- Collins, G. (2008). *뉴 크리스찬 카운슬링*. (한국기독교상담 심리치료학회 역, *New Christian counseling*, 3rd ed). 서울: 두란노서원. (원전 2007 출판)
- Cosgrove, M. (1988). *Counseling for anger*. Vol. 16. Dallas, TX: Word Publishing.
- Dumbrell, W. (2002). *The faith of Israel: A theological survey of the Old Testament*. 2nd ed.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 Elbedour, S., Bart, W., & Hektner, J. (2000). Scholastic achievement and family marital structure: Bedouin-Arab adolescents from monogamous and polygamous families in Israel.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0(4), 503-514.
- Erickson, M. (1985).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 Floyd, S. (2008). *Crisis counseling: A guide for pastors and professionals*. Grand Rapids, MI: Kregel Publications.
- Gentry, P., & Wellum, S. (2015). *God's kingdom through God's covenant: A concise biblical theology*. Wheaton, IL: Crossway Books.
- Geisler, N. (2012). Proclaiming the changeless truth in these changing times. *Southwestern Journal of Theology* 55(1), 37-38.
- Goldenberg, I., & Goldenberg, H. (2000). *Family therapy: An overview*. 5th ed. Belmont, CA: Wadsworth.
- Grith, D. *1 & 2 Samuel*.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9.
- Hocker, J. & Wilmot, W. (1995). *Interpersonal conflict*. 4th. ed. Madison WI: Wm C. Brown Communication.
- Ingram, C. (2006). *Effective parenting in a defective world*. Carol Stream, IL: Tyndale House.

- Ivey, A., Ivey, M., & Zalaquett, C. (2018). *상담의 기술* (방기연, 김희수, 박현주, 이수진 역, *International interviewing and counseling*, 8th ed.). 서울: Cengage. (원전 2014 출판).
- Kim, T. (2012). Church conflict and its resolution in Southern Baptist Korean-American churches In North Texa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 Kostenberger, A., & Jones, D. (2010). *God, marriage, and family*. Wheaton, IL: CrossWay.
- Lev-Wiesel, R., & Al-Krenawi, A. (2000). Perception of family among Bedouin-Arab children of polygamous families as reflected in their family drawings. *American Journal of Art Therapy*, 38, May, 98-106.
- Luther, M. (2000). *The large catechism in the book of concord*. (R. Kolb & T. Wagner, Eds.; C. Arand, Trans).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 Miller, J. (2004). *Proverbs*. BCBC. Scottsdale, PA: Herald press.
- Nicholson, J., Fergusson, D., & Horwood, L. J. (1999). Effects on later adjustment of living in a stepfamily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 40, No. 3, 405-416.
- Ozkan, M., Altindag, A., Oto, R., & Sentunali, E. (2006). Mental health aspects of Turkish women from polygamous versus monogamous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52(3), 214-220.
- Planitz, J., Feeney, J., & Peterson, C. (2009). Attachment patterns of young adults in stepfamilies and biological families. *Journal of Family Studies*, 15(1), April. 67-81.
- Potter-Efron, R. (2004). One size does not fit all: Learning to recognize the many faces of anger. *Psychotherapy Networker* 28 (May-June), 27-28.
- Tripp, P. (2001). *Age of opportunity: A biblical guide to parenting teens*.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 Sherrill, L. (1994).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Y: The Macmillan Company.

- Sire, J. (2020). *The universe next door: A basic worldview catalog*. 6th ed. Downers Grove, IL: IVP.
- Swihart, J., & Richardson, G. (1987). *Counseling in times of crisis*. Vol. 7. Waco, TX: Word Books.
- Wallerstein, J., Lewis, J., & Blakeslee, S. (2000). *The unexpected legacy of divorce: A 25-year landmark study*, NY: Hyperion.
- Wallerstein, J., & Blakeslee, S. (1989). *Second chances: Men, women, and children a decade after divorce*, NY: Ticknor & Fields.
- Wiemers, E., Seltzer, J., Schoeni, R., Hots, V. J., & Bianchi, S. (2019). Stepfamily structure and transfers between generations in U.S. families. *Demography* 56, 229–60.
- Yarhouse, M., & Sells, J. (2010). 기독교 가족치료 (전요섭, 한숙자, 변영인, 김영희 역, *Family Therapies*). 서울: CLC. (원전 2008 출판).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80972>. 예
2020년 10월 30일 접속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0년 9월 28일 접속.
Controlling anger before it controls you.
<http://www.apa.org.topics/anger/control>.
- DSM-V.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20년 10월 27일 접속.

【 Abstract 】

A Pastoral Counseling View and Application of King David's Dysfunctional Family

Paul Taidoo Kim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e & Seminary

This research focused on King David's dysfunctional family from a pastoral counseling perspective to apply to pastoral ministry. This research might be resourceful to pastors and parents who seek to understand and apply this study to counsel dysfunctional families.

Three steps were applied in this study. First, the researcher studied the text (2 Sam 13:1–16:23) via brief exegesis to articulate the background of the narrative. Second, the researcher analyzed the text from a pastoral counseling and socio-psychological perspectiv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searcher found that David failed to manage anger as a parent. This resulted in three lessons from David's failure: (1) Destruction of familial relationship, (2) Escalated anger and resentment between family members, (3) Negative influence from ignoring opportunities to bring healing and recovery to the family. Third, the researcher suggested four applications in pastoral counseling and in parenting. King David's dysfunctional family calls for attention in the areas of (1) the significance of timely crisis counseling, (2) the importance of exemplary parenthood, (3) the importance of proper discipline and punishment in parenting, and (4) the significance of learning to deal with anger management in the family. From this study, pastors and parents may learn valuable lessons to build a biblically healthy family.

Key words: dysfunctional family, crisis counseling, anger management, avoidance, discipline